

전국 여성 경제인 1000명 진도서 CEO 경영연수

11~12일 진도공설운동장 일원 투자유치설명회·기부금 전달 진도문화유산 탐방 등 행사도

진도군은 '2023 전국 여성 경영자(CEO) 경영연수 행사'가 오는 11~12일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여성경영자(CEO)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들의 경영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열리는 국

내 최대 여성경제인 교류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환) 주관으로 여성 경제인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 투자유치 설명회, 특별강연, 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진도군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진도북놀이, 서화 체험, 진도 전복·홍주·구기자 시식, 농수산물 판촉행사, 떡메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이들제는 진도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도탐방 등으로 꾸며졌다. 진도 군립민속예술단 공연, 진도개 독(DOG) 스포츠,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행사에 앞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와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 준비, 교통관리, 안전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진도군은 연도별 꽃길 조성, 이동진료

소 운영, 환영 현수막 게시, 공중화장실 관리 등 진도를 찾는 여성 경영자(CEO)들의 방문 편의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진도군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여성 경영인들이 즐겁고 안전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진도군에 대한 투자유치, 관광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완도군, 81억 투입 농업용수 확보 겨울 가뭄 대비

완도군은 6일 겨울 가뭄에 대비해 총사업비 81억여원을 투입,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평균 강수량은 88.35mm로 평년 강수량 138.7mm의 63%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완도군은 8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수 개선, 관정 개발, 지표수 보강 개발, 용배수로 정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별 실정에 맞는 용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 초기 단계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고 비상 연락망도 정비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영암군, 지역업체 상품 홍보 지원 지역사회 우선구매 조치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역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제품의 홍보 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영암군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과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에 나선 것.

조치의 하나로 영암군은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사업장·상품 정보를 군 홈페이지와 군 발행 홍보용 소책자에 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 우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업체 홍보 신청은 영암군 일자리 경제과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61-470-2592)로도 신청 가능하다. 영암=이병영 기자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제 해남군, 시가지 청소차 운행 등

해남군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수송부문에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에서 제한된다.

시행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까지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남군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김장김치 나눔 배추 수확 무안 망운면 새마을부녀회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숙)가 지난 5일 목동리 소재 농장에서 김장김치 나눔을 위한 배추를 수확했다.

수확한 배추 500포기는 8일 새마을부녀회 주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관내 어려운 소외계층에 겨울 나기 지원을 위한 물품으로 전달해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희숙 망운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수 망운면장은 "수확한 배추와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병연 기자



무안군 망운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숙)가 회원들과 함께 목동리 소재 농장에서 김장김치 나눔활동을 위해 배추 500포기를 수확했다. 무안 망운 새마을부녀회 제공

영암서 기능성 함암쌀 첫 수확 함암기능성 성분 ↑

영암에서 기능성 함암쌀 176톤을 첫 수확해 선보였다.

기능성 함암쌀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활용해 유기농 탄소치유농법으로 벼를 재배한다. 일반 쌀보다 함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수치가 높아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함암쌀 계약재배를 위해 친환경 재배단지 30.8ha를 시범 선정하고 19농가의 참여를 유도했다.

군은 지난 7월 재배농가교육을 실시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8~9월 시범 재배단지에서 이온 미네랄을 살포했다.

10월 기능성 쌀 재배를 총괄한 영암농주농협은 재배농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재배 노하우도 공유했다.

11월 성분검사 결과 생산량 90%가 넘는 양에서 함암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자연드림은 이달 초 영암군 함암쌀 전체를 시중 유기농 쌀 수매가 110% 수준으로 매입했고 아이쿱생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기능성 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5000 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고,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함암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의 생산을 확대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가소득도 높인다.

올해 전남에서 기능성 쌀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한 곳은 영암군을 포함해 해남군·신안군·구례군·곡성군이며 농자재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한 곳은 영암군이 유일하다. 영암=이병영 기자

전남도 정보화마을 균형발전 기여 '대통령 표창'

정보격차 해소·소득창출 한몫

전남도가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관료 기자 등의 운영 성과와 정보화마을 등 운영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각 1곳, 장관 표창 36곳 등 총 38곳을 표창했다.

전남도는 주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

다.

정부예산 지원 종료 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전남지역 정보화마을은 2001년 농산어촌 2개 마을 구축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49개 마을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현재 32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명절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정보화마을 페스타(Festa) 개최를 지원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활용한 비대면 특판 행사도 진행했다. 정보화마을의 자립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을 지원하고 시설 지원사업 공모,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 정보담당관은 "정보화마을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상에서 나주 배꽃마을 김의숙 프로그램 관리자는 행안부장관 개인 표창을 받았다.

순천 낙안배이곡마을, 화순 능주정보화마을, 나주 배꽃마을, 광양 섬진강재첩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진재 기자

강진 녹색문화대 포도과정반 태국 수출 활로 모색

현지 포도 시장 동향 파악 등

강진군은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살피고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태국 연수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문화대학교(이하 녹색대) 포도과정반 11명과 관계 공무원 2명이 참석해 태국 방콕의 유명백화점부터 대형마트, 도매시장등을 견학하며 포도 유통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규격별 가격과 맛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 사인머스켓 포도가 지난 10월에 미리 수출해 판매되고 있는 방콕의 한 대

형 마트에 직접 찾아가 다른 수출국의 포도와 비교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됐다는 평가이다.

연수를 인솔한 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준 팀장은 현지 수입 바이어 대표, 국내 수출 바이어 대표 등과 실무협약식을 갖고, 향후 강진산 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출에 상호 협조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태국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녹색대 과정 참여 농가들은 포도 유통과 수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포도의 품질향상에 열정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수집한 유통 정

보를 포도 농업인들과 공유해 포도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고 딸기나 마늘 등 다른 농산물의 대태국 수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수 마지막 날 실시한 간담회에서 박충진 대표는 "지역민이 생산한 포도가 해외에서 다른 나라 포도와 경쟁하는 현장을 직접 보니 더욱더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절로 생긴다"면서 함께한 농업인들과 포도 경쟁력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수에 앞서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산물의 해외수출이 품질 향상과 함께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